

산수유나무 특성 및 번식방법

L A N D S C A P I N
G



농학박사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 산수유포

머리말

산수유는 한자로 山茱萸로 쓰고 석조(石棗), 촉산조(蜀酸棗), 계족(鷄足), 서시(鼠矢), 육조(肉棗), 야춘계(野春桂) 등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수유라는 말은 산수유, 식수유, 약수유 등 여러 이름에 들어가고 있다. 용도는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과실은 사람에게 필요한 강장제로서 많은 혜택을 주는 수종이다. 산수유나무 재배는 대부분 일정지역에 특별한 기술을 소유한 농가에 한하여 재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농가에서 밭 톱 또는 울타리나 집안에 한두 그루를 심어 재배 하였다.

꽃은 유달리 미려할 뿐 아니라 봄소식을 일찍 알려 주며 여름에는 푸른열매, 가을에는 빨갭게 무르익는 종자가 아름다워 조경수종으로도 가치가 높은 나무라고 할 수 있다.

1. 특 성

산수유나무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7m, 직경 40cm에 달하며 지리적으로 중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는 중국으로부터 도입 식재된 것으로 알려 졌으나, 1970년 광릉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되어 우리자





▲ 산수유꽃



▲ 근접



▲ 꽃눈

생종임이 밝혀졌다.

생장은 토심이 깊고 비옥 적절한 곳에서 생장이 좋으며 햇볕을 좋아하나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공해에는 약한 편이고 내한성은 강하며 이식력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대 지방에 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이른 봄의 꽃과 가을의 열매가 모두 아름다워 가로수, 정원수로 식재되고 수형은 정형으로 가지가 무성하고 잔가지와 잎

이 대생한다.

잎길이는 4~12cm, 잎폭2~6cm로 대생하고 장타원형으로 4~7개의 측맥이 뚜렷하며 잎 표면에 광택이 있고 잎 뒷면 맥사이에 갈색의 강한 털이 있다. 꽃은 양성으로 3월에 노랗게 피고 산형화서(傘形花序)로 20~30개의 작은 꽃들이 뭉쳐 퍼지며 핀다. 열매는 8월에 빨간 핵과로 익기 시작하여 10월에 완숙한다. 장타원형의 핵과는 길이 1.5~2.0cm로서 광택이 있다.

2. 용 도

산수유나무는 동남아 각국에서 예로부터 한약제로 사용하고 있어 그 이용가치가 유망한 수종이며 약용으로는 열매의 핵과중 종자를 제거한 과육을 건조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약용의 효능은 자양강장제, 치요술, 월경과다, 간염,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이명, 오줌이 자주 나올 때 등의 치료제로 효능이 좋으며, 열매색깔도 양호하여 염료로도 사용된다. 또한 나무의 자태와 잎, 꽃, 열매 등의 관상 가치가 풍부하여 조경수, 정원수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열매는 씨를 빼고 그늘에서 말린 것을 자양강장제로 사용하고 술을 빚기도 한다. 꽃은 이른 봄 꽃



▲ 꽃이 질때



▲ 산수유잎



▲ 여름열매



▲ 과실



▲ 과실



▲ 건조시키느과정



▲ 정선된종자

꽃이 소재의 절화용으로 특성 개화시켜 1월부터 출하시키고 있다.

3. 재배방법

가. 종자채취

산수유나무의 증식법은 종자에 의한 실생법으로



▲ 노령목 가지



▲ 수피

묘목을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종피에 유세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발아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일반조림 수종에 비하여 증식하는데 기술을 요한다.

종자채취는 10월 하순경 완숙된 종자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 정선한 후 젖은 모래와 혼합하여 50cm 깊이로 배수가 양호한 곳에 2년동안 노천매장 하였다가 봄에 파종한다.

나. 양 묘

포장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의 포지에 m^2 당 요소 30g, 중과석 30g, 염화加里 15g, 퇴비 2kg, 헵타크롤 5g 등을 고루 뿌린 후 경운한다.

파종상은 폭 1m, 높이 10cm, 작업보도는 50cm로 만든다. 파종상 준비가 끝나면 묘판위에 m^2 당 종자를 0.3~0.4 l 를 고르게 뿌린 다음 1.5~2cm의 두께로 흙을 덮고 그 위에 짚을 덮는다. 파종 후 1개월이면 대부분의 종자가 발아한다. 발아가 끝나면 묘목의 자람새를 보아 m^2 당 90~100본정도가 적당하며 제초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주 실시해야 한다.

다. 관리 및 수확

산수유나무는 소교목성이므로 가지가 총생하며 결실량이 많으므로 겨울을 나는 동안 결과지를 정

지정정을 하여 준다.

산수유나무의 병충해는 잎마름나방, 좀나방, 갈반병 등이 있으며, 잎마름 나방은 5~6월경 잎을 말고 잎 속에서 잎을 식해하는 해충으로 적기에 마라치온 또는 디프테렉스 1,000배액을 1~2회 살포하여 구제한다. 갈반병은 장마철에 잎이 고사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장마철 직전 또는 후에 다이젠 1,000배액을 2~3회 살포한다.

좀나방은 8월 상순에 과실에 산란하여 과실 속에 들어가 침식을 하는 것으로 과실의 조기낙과 또는 과육의 불량 형질을 나타나게 되므로 우화산란기에 마라치온 700~1,000배액을 2~3회 살포하여 산란을 예방한다. 수확 시기는 식재 후 5년생부터 약간씩 결실하기 시작하여 7~8년생부터 수확이 시작되며 수확 최성기는 20~80년생부터 수확이 많아 재배 수명이 긴 수종이라 할 수 있다.

결실량은 지역별, 입지조건 및 재배경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산수유과실의 건조방법은 과실이 검붉게 익은 11월 상순경 채취하여 햇볕에 건조시키는 방법과 온돌방에서 3~4일간 건조시키면 반건 상태가 된다. 이때 과실의 씨를 발라내고 과육을 모아서 햇볕에 말린다. 과육의 함수율은 19%까지 건조시킨다. 건조된 과육은 유탕이 있고 신맛이 많은 것이 우량한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